

사 회 단 신

차산리 주민 골포장 건설 저지

남양주시 차산리 관내 고래산 골포장 건설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대 투쟁이 8년만에 빛을 보았다.

주민들은 91년 11월에 실시한 환경영향 평가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는 한편 남양주시의 골포장 공사 착공 계획 수위에 문제점을 지적해 결국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차산리 주민들의 고래산 골포장 건설 저지는 다른 지역의 골포장 건설 시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항공대, 거세진 국립환경운동

'대한항공재단 퇴진'과 '국립환경'을 요구하는 한국항공대학생은 국립경사대 19명을 결성하여 국민회의 중앙 당사에서 무기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번 점거 농성은 항공대와 인하대의 재단 합병 움직임, 사립화 이후 나타난 교육의 낙후성에 대한 문제로 항공대 학생들이 19년간 계속적인 활동을 전개한 국립환경운동이 거세진 것이다.

학생들은 항공대 국립환경을 위해 모든 방법 동원, 투쟁할 것이며 항공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물론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인권논문 현상모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인권논문을 현상 모집한다.

젊은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자각을 일깨우기 위한 취지로 실시하는 논문 현상모집은 인권, 민주화 및 사법 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량은 2백자 원고지 1백50매 이상이며 접수 마감은 내년 2월15일까지이다. 문의는 민변사무국 522-7284이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승인 거부

서울대는 지난 14일 총선거로 뽑힌 정병도(조선해양공과)총학생회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20일 결정했다.

학교측은 지난달 학생회관 창문을 부셨다는 이유로 석달간 유기 정학을 받은 정씨를 학생 대표나 대외상대자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학생들은 "학생들이 직접 뽑은 학생회장의 승인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이며 학원 자치권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주장했다.

덕성여대 학생 외면 이사진 개편

지난 20일 덕성여대의 이사회가 시간과 장소도 통보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에 대해 학생들은 새로운 이사진의 개편이 비리 축제를 고발한 학생들에 의해 해임된 전 박원국씨가 원하는 대로 짜여지고 있다며 이를 눈감아 주는 교육부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들은 교육부가 '관선 이사'의 파견은 어렵지만 민주적 이사진 개편은 도와주겠다'는 중재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박원국씨의 지연 작전과 회유에 휘둘러 이젠 '덕성여대 문제는 자체 내에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시위를 하고 있다.

97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한 대선후보의 농업정책

쌀 직접보상제, 농가부채 해결 급선무

농민, 당선후 공약 불이행시 집요하게 요구할 터

지난 18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97전국농민대회'에서는 대선 후보(이회창 후보제외)들이 참여해 농업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우리신문에서는 '농민대회에서 나타난 농민들의 요구와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농업정책을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장 이수금) 소속 농민2만 여명과 학생 2백여 명은 18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금성무대에서 '97전국농민대회'를 열고 '농축산물 가격 보장과 농가부채해결'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농측은 대표연설에서 "농업포기가 유일한 대안인 상태가 되었지만 오천년 민족농업의 대를 끊을 수 없다"며 "우리는 지속적인 농업정책을 펼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며 당선 후에도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끝까지 집요하게 요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결의문에서는 "김영삼 정부의 신농정과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실패"를 규탄하며 "농민의 영농의지를 꺾고 생존권을 박탈한 무분별한 수입개방과 농축산물 가격정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농가부채 해결' '98년 추곡 약정수매가의 동결방집확정' 'WTO이행 특별법 제정' 등 6개항을 요구했다.

이어 이인제(국민신당) 후보가 농업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농업을 21세기 새로운 첨단산업으로 발전 육성시켜겠다는 공약과 함께 구체적인 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안의 내용으로는 △제2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추진 △2천년까지 시군에 1개이상의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 유통정보시스템 도입 △한우전원농 1만호 신설 △농작물 재해 보험제도, 직접지불제도 도입 △초고속 농업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다.



▲지난 18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97전국농민대회'에서 각 대선후보의 농업정책이 제시되었다.

권영길(국민승리21) 후보는 "우리당의 주장이나 정책은 농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20가지 정책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권 후보의 농업정책으로는 △10년간 농업예산을 전체예산의 15%수준으로 확충 △직접지불제도 실시 △농산물가격보장 최우선 △무상의료실시 등이 있다.

또 김대중(국민회의) 후보는 "농가부채는 정부가 농민에게 빚진 것"이라며 △농업투자자 증권규모의제원 확보와 재투자 △농가부채 상환유예, 이자동결 △직접지불제도 실시 △초고속도로와 무교육 실시,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등을 내세웠다.

이회창(한나라당) 후보는 이날 참석하지 않았으나 농민대회 다음날 충북 한주곡수매장에서 "선진농업·농촌실현을 위한 장기정책을 추진, 농업 및 농촌발전

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2단계 농어촌 투자사업추진 △2천4년 쌀 재협상시 유리한 입지 확보, 전업농 6만호 육성 △농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농어촌 고교까지 학비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행사에서는 참가한 농민들의 반응이 여느 때 보다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단 참석하지 않은 이회창후보에게는 "농민을 등진 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으나, 체감온도가 영하 10도를 오르락 내리락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시간을 약 1시간 20분이나 늦은 김대중 후보에게는 공약발표시 "김대중 김대중"이라고 외치는 등의 행동을 보여 대략적인 민심의 향방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최현일 기자>

행당동 재개발지역 강제철거 성추행 규탄대회

반 인륜적 철거행위 명백한 규명 요구

'행당 1-2지구 강제철거 및 성추행 규탄 시민대회'가 지난 20일 한양대 가로공원에서 주거연합 성동, 동대문지부 등 8개 관련단체 주최로 열렸다.

약 5백여명이 참가한 이번 규탄대회에서는 "재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강제 폭력 철거 추방" "반 인륜적 철거행위 반대" "임대아파트 입주권 보장" 등을 주장하며, 행당동 1-2지구까지 거리행진을 하였다.

행당 1-2지구 강제철거사건의 발단은 지난 9월 30일 철거용역들이 강제철거를 강행하면서 시작되었다. 재개발조합 1백여명과 임시로 고용된 5백여명의 용역들이 행당 1-2지구에 침입해 철거를 시작하였고, 이를 저지하던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졌다. 이과정에서 용역들은 부녀자들에게도 달려들어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움켜쥐고 혼드는 등의 성추행을 자행하였다.

본 대회에서는 하수복 세입자대책위원장의 인사말과 "지역주민 외면하는 성동구청 박살내자"는 등의 규탄사가 있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이번 사태를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목숨걸고 싸우겠다"는 등의 결의문 낭독 후 2부 거리행진이 진행되었다.

거리행진 마지막 순서로 이루어진 '모의 적준철거용역 인형 화형식'에서는 4~6명의 주민들이 모의 인형을 짓 밟은 뒤, 석유를 뿌려 화형식을 거행하였다. 현재 행당동 1-2지구에는 1백 70가구 중 38가구만이 임시비닐하우스 속소에 남아있으며 당시 강제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가재도구 파괴 6천여만원 및 폭행에 대한 치료비 1천만원 등을 변상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다.

한편 이날 열린 규탄대회에 권영길(국



▲지난 20일 한양대 가로공원에서는 열린 규탄대회에서 한 철거민이 피켓을 들고 있다.

민승리 21)후보의 부인이 참여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사회부>

강 단 시 론

우리는 때로 별 생각없이 행동하고는 뒤늦게서야 후회를 할 때가 있다. 더욱이 생각을 하면서도 그 생각이 짧고 그릇되어 곤욕을 치르거나 분란을 겪고 심지어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이기도 한다. 가령 꽃을 보면 누구나 아름답다고 느낄 것이다. 그래서 과학적 진리는 변할 지언정 아름다운 것은 영원하다고도 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얼마나 정성들여 가꾸며 살고 있는가. 오히려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함부로 짓밟으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목적이 정해지면 그것을 이루고자 일사불란하게 질서를 지키고 변함없이 근면함을 보이는 의로운 벌레로 개미(蟻)가 있다. 근면을 상징하는 개미에 얽힌 일화 또는 우화는 세계적으로 풍부하다. 그러나 이렇듯 근면성을 지닌 개미를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화집산화에 나오는 유르돈이라는 개미 인간은 인간적 자유나 재량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전체주의적 인간을 말한다.

특히 티베트에서는 개미의 생활이 이승의 재산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사는 맹목성에 비유된다. 그러나 분명히 개미가 날마다 부지런히 일해서 창고 가득 곡식을 쌓아두게 되었다. 마침내 창고가 모자라게 되어 또다

목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혹은 남보다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세속적인 인기와 명예만을 위해서, 혹은 여타의 올바르지 못한 목표를 향해 정신없이 질주해가고 있는지려나. 사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존재하기보다는 가치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텐데 하도 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얼마나 정성들여 가꾸며 살고 있는가. 오히려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함부로 짓밟으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를 바라다 보면 원로 작가의 글씨가 새삼 깊은 감동을 준다. 그러한 울퉁한 소인이 있었기에 평생 동안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반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비일비재하다.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면서 비본질적이고 겉대기에 불과한 것들을 붙들고 악착같이 살고 있는 듯하여 서글프기까지 하다. 수단이 치와 목적이치기 뒤집혀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목적이 수단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목적이 과정을 합리화하며 사는 맹목성에 비유된다. 그러나 분명히 개미가 날마다 부지런히 일해서 창고 가득 곡식을 쌓아두게 되었다. 마침내 창고가 모자라게 되어 또다

본질적으로 생각하라

시 창고를 만들었고, 그 창고를 다시 채우기 위해 일을 열심히 하고, 창고를 또 만들고 채우고, 이런 날들이 반복되었다. 이렇듯 열심히 일하던 개미가 지치고 병들어 마침내 죽게 되었다. 죽어가는 순간 개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쓰러져가는 개미의 눈 앞에는 풀잎이 있었고, 그 풀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 방울을 보게 된 것이다. 그 작은 이슬방울은 마침 떠오르는 아침 햇살에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이슬을 바라보던 개미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맹목적으로 달려온 자신의 삶에서 놓쳐버린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뚜렷한 목적도 없이 그저 열심히 살고 그것에 만족하며 산다면, 단순한 훗날 그 공허함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지는 않았는가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중심과 주변, 본질과 비본질 등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이성을 갖고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질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새로운 생각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관점을 달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의를 했을 때 어떤 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차세계대전 때 일본은 인간을 생체실험의 도구로 사용했고 이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때의 그런 실험이 더욱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료계의 혁신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의 생체실험은 인류의 행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본질적인 생각이 수반되지 않으면 새로운 생각은 매우 반사회적이고 난도덕적이며 무의미에 머물 수 있다고 보는 유의해야만 한다. 단순한 사고, 표면적인 논리, 극단적인 주장을 넘어서는 본질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자.

외국어 교육 1번지!

매월 1일 개강

수시 등록·수강

YBM 시사영어사

(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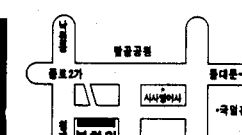
영어·일어·중국어

- 엘리트 종합 TOEIC
- TOEIC L.C.
- TOEIC R.C.
- TOEIC 단계별 공략
- 아카데미 TOEFL
- 신경향 TOEFL
- TOEFL L.C.
- 영어 순회
- TIME
- 기초 L.C.
- AFKN 청취
- VOCABULARY
- 영 작문
- 영어실력기초
- 편입영어/발음특강
- Communicate 회화
- Interchange 회화
- Side By Side 회화
- GMAT/GRE
- 일본어 문법·독해
- 일본인 일어회화
- 중국어 문법·회화
- 주말 특별 과정

미국인 회화 과정 (YEC)

YBM English Conversation

- 정월 제(12명)
- Level Test 수반편성
- 강사진 전원 Native Speakers
- 최신교재: YBM English 21



대표전화 : 276-0509

탐골공원(종로2가) 맞은편 YBM 시사영어사

아르바이트생 모집

저희 회사는
원격외선을 전문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원하십니까?

- 기본급 월 30~50만원
- 기본급 외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및 방문 해주세요
일이 어렵나구요?

천만에요

학생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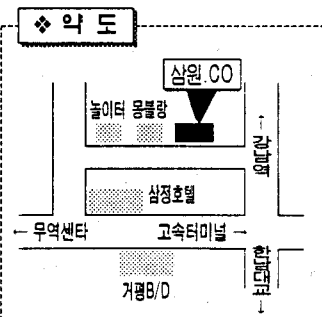
외근이나구요?

집에서 전화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이 참여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세요



삼원상사 TEL:539-6948~9
FAX:539-6949

유학.연수

정확한 정보, 친절한 상담, 성실한 수속대행
미국/캐나다/호주/영국/뉴질랜드/일본

- 고졸이상 학력자 2년/4년제 대학입학
- 정규대학 조건부입학 허가서 취득
- 한국학생 적은 학교 안내·주선
- 방학/휴학중 장·단기 어학연수 특별상담
- 전문대졸/4년제 대학생 정규대학 편입학
- 어학연수 무료상담수속(공립학교제외)
- 어학장 전용 기숙사 무료알선
- 전문적 과정(항공,골프,호텔,디자인,미용...)
- 부분수속가능: 입학허가서, 여권, 비자, 번역
- 배려량 전문가와 언제라도 상담환영
- 일본어 학교, 법무성 유학심사부 출입책임자.
- 및 학생지도 상담역 8년의 산경험으로 상담
- 日本은 98년 졸업예정자는 98. 1. 13까지 추가 모집

상담부터 귀국까지 모든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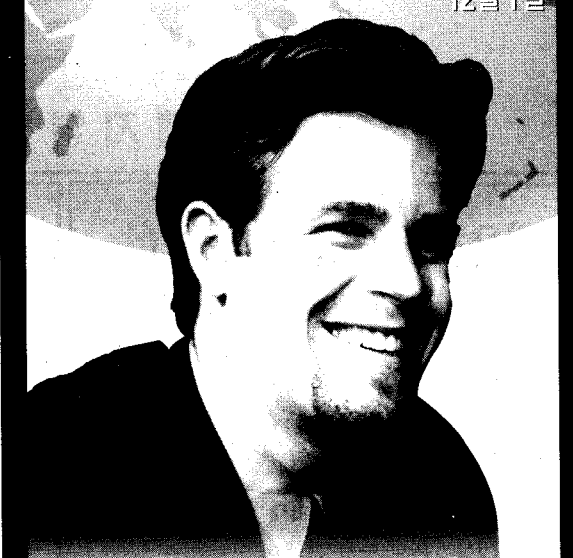
All that for your future!

유학광장(강남전철역 뉴욕제과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7-20 경일빌딩 403호

상담전화 : 558-3741(대)

언어! 세계로! 개강 12월 1일



세계화! 말이 술술 통합니다.

많은 외국어 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원이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않습니다. 저희 청문은 고기를 낚아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낚는 법은 가르쳐 드립니다.

영어회화: EFL코스, SIDE BY SIDE, INTERCHANGE, FREE TALK, TOEIC종합, TOEIC L/C/R/C, SCREEN LINE LISTENING, 기초LISTENING, TOEFL, 기초VOCABULARY, AMERICAN HEARING, AFKN, 영작문, 영어순회, GRE, 영문법, 대학편입영어, 영어초급, 영어회화, 영어능력시험, NHK청취, 일어특강, 일본회화,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주말특별강좌.

매월 TOEIC, TOEFL 모의TEST 실시

청문외국어학원
738-5151(대) 종로2가 종로서적뒤